BTS ‘러브유어셀프’ 투어 취재의 선물, 아미(ARMY) 친구가 생겼다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공연을 개최한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 I’ve heard bout the virus in korea! Hope you are well and Protected! Sending light and prayers your ways.”

31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 대구지역이 쑥대밭이 됐던 지난 2월 말, 영국인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 엔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이라 코로나19는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영국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UK BTS ARMATION’을 운영 중인 엔니는 4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자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을 취재하는 내게 문의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아미들을 만난 게 불과 1~2년 전 추억이라니. 코로나19로 ‘언택트’가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메신저로 소통하며 방탄소년단의 음악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2018년 9월, 뉴욕 시티필드 텐트촌에서 치킨을 얻어먹다

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의 미국 뉴욕 시티필드 콘서트를 공식 발표했다. 뉴욕 메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에 한국 가수가 공연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과거 스포츠지 출신 선배들이 박찬호의 뉴욕 양키스 경기 취재차 미국 취재를 다녀온 얘기를 영웅담처럼 전해 듣긴 했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서구권 출장이 드물었다. 일본과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한류가 성장한 탓이다. 2010년 이후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뱅, 소녀시대 등 케이팝 2세대들이 유럽에서 인기를 얻긴 했지만 스타디움 공연을 열 정도는 아니었다. 더욱이 팝의 본고장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한국 가수가 공연하다니! 십 년 넘게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취재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출장계획을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월드투어인 만큼 공연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러브유어셀프 공연은 이미 서울에서도 한 차례 관람했다. 장소만 잠실에서 뉴욕으로 옮겼을 뿐이다. 다른 기획이 필요했다.

때마침 외신에서 방탄소년단의 LA 스테이플스센터 공연에 앞서 콘서트를 기다리는 아미들의 텐트촌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노란 머리, 푸른 눈의 소녀들이 케이팝 스타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며칠씩 '떴다방' 처럼 텐트촌을 꾸리는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 보는 진기한 광경이었다. 궁금증이 솟았다. 공연 전 아미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3박 5일간의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아미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맨해튼 중심부를 먼저 둘러보니 도심은 이미 아미들이 점령해 있었다. 아미를 찾는 것은 간단했다. 그들은 전리품처럼 기념품을 잔뜩 담은 봉투를 2개 이상 들고, 방탄소년단 피규어로 장식한 헤어밴드를 쓰고 있었다. 등 뒤에 한글로 '방탄소년단' 이라고 적은 후드티를 입은 소녀들도 있었다. 공연 관람을 위해 가족과 함께 왔다는 10대 소녀는 서울에서 온 기자라고 하니 사진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적어도 이날 맨해튼에서만큼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 아닌 방탄소년단이라고 확신했다.

밤 9시. 취재를 위해 시티필드로 발길을 옮겼다. 이미 공연 1주일 전부터 시티필드 앞 주차장은 아미들의 텐트로 뒤덮여 있었다. 구장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텐트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미들은 막무가내로 이곳을 점령했다.

방탄소년단의 '러브유어셀프' 콘서트를 보기 위해 시티필드 앞에 모인 관객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드넓은 주차장에서 한국어가 들렸다. 웨스터체스터에서 왔다는 교포 일가족이었다. 딸과 조카가 아미라 함께 왔다는 어머니는 가족들과 치킨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취재차 온 기자라고 하니 "먼 곳에서 왔다"고 웃으며 닭다리와 맥주를 권하셨다. 어머니는 24살에 이민와 20년 넘게 미국에 살며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2016년 '태양의 후예' 의 인기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딸인 나영 씨는 "한국인이지만 케이팝을 싫어했는데 BTS의 등장 이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나영 씨와 사촌 지원 씨가 통역을 자처하며 취재를 도운 덕분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각양각색의 아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 '텐트 웨이팅' 은 하나의 놀이문화이자 미국 곳곳의 아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이역만리 미국에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분한 친절을 받다니, 밤 기온은 쌀쌀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졌다. 그렇게 나는 여러 아미들의 도움으로 취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019년 5월, 영국 아미들과 런던 분식집에서 소맥을 마셨다

방탄소년단은 연일 최초, 최고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갔다. 2019년 6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콘서트도 그중 하나

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팝 역사상 가장 화려한 쇼로 꼽히는 1985년 '라이브에이드' 콘서트에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25분간 공연한 상징적인 장소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로 화제를 모았다.

영국 출장은 미국 출장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미국 출장 때만 해도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타사들이 대거 현지 취재를 계획했다. 종합지, 스포츠지, 온라인 연예매체, 현지 특파원까지 적어도 50개 가까운 매체들이 현지 취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무작정 포털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하다 런던 거주 경험이 있는 한 아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런던의 아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웸블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포스팅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일을 보냈다.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현지 취재를 계획 중인데 혹시 런던 아미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답장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친절한 아미께서는 현지 아미들의 모임과 리더를 소개해줬다.

앞서 언급한 엔니는 이렇게 만난 영국인 아미다. 엔니는 한국을 좋아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방탄소년단으로 한국을 알게 됐다는 그는 맛있는 한국 음식과 아기자기한 카페, 식당에 홀딱 빠져 있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익선동의 한 카페였다.

한국어를 약간 할 줄 아는 엔니는 나

방탄소년단의 '러브유어셀프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 1주일 전부터 시티필드 앞에 텐트촌이 생겼다. (조은별 기자)

방탄소년단의 '러브유어셀프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 1주일 전부터 시티필드 앞에 텐트를 친 관객들 (조은별 기자)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개최한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를 "은 언니"라고 불렀다. 20살가량 어린 외국인에게 "언니"라고 불리는 기분은 상당히 낯설었다. 우리는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5월31일 피카딜리 광장에서 접선하기로 했다. 팬클럽 회원들과 이날 상영되는 방탄소년단의 현대자동차 광고를 본 뒤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었다.

피카딜리 광장 앞은 인산인해였다. 발디딜 틈조차 없어 까치발을 든 채 인파에 껴 있어야만 했다. 런던의 상징인 빨간 버스를 탄 시민들은 "어디 호떡집에 불이 났나" 하는 표정으로 도로의 아미들을 지켜봤다.

각양각색의 피부를 지닌 아미들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대 혼동 속에서 가까스로 엔니의 팬클럽 일행을 만났다. 한동안 광고의 여흥에 취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아미들은 인근 옥스퍼드 거리로 장소를 옮겼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분식을 파는 식당이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질문이 쏟아졌다. 이들은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맨체스터에서 여동생과 함께 왔다는 다르야는 드라마 '도깨비'에 이어 'SKY 캐슬'도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도깨비'야 한류스타 공유가 출연한 로맨스물이

지만 'SKY캐슬'은 한국의 입시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일 텐데, 문화콘텐츠의 힘에 새삼 놀랐다. 다르야에게 "맨체스터 출신인 영국밴드 오아시스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차! 이들에게 오아시스는 이미 '옛날 사람'이었던 셈이다. 다르야는 오아시스는 알지 못하지만 한국 그룹 슈퍼주니어와 갓세븐을 좋아했다.

치킨과 잡채, 떡볶이가 전채로 등장했다. 떡볶이는 매우니 조심하라고 조언하자 회원들은 "우리는 떡볶이를 아주 좋아한다"며 웃었다. 음식이 맛없기로 소문난 영국답게 떡볶이는 단맛 없이 맵기만 하고 잡채는 불어 있었다. 몇몇 회원이 "한국에 가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한국에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비슷하다"며 애써 웃었다.

경사에 축하주가 빠질 수 없다. 소주가 등장했다. 옆 테이블에서는 아예 '소맥'을 말고 있었다. '소맥'에 대해 '회사 모임에서 자주 마시는 술'이라고 설명하자 아미들은 일제히 "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드라마의 힘이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막걸리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다.

한국에서도 잘 안 마시던 '소맥'을 런던의 분식집에서 낯선 외국인 아미들과 함께 마셨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아미들과 카카오톡 친구를 맺었다. 이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학창시절 영어공부에 허덕이며 언제쯤 세계인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날이 올까 고대했는데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그런 날을 만들었다.

2019년 가을, 잠실 종합운동경기장에서 아미 친구를 만났다

로레인 역시 블로거 아미가 소개해준 영국 아미였다. 아쉽게도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 영국에서 만나지 못했다. 어차피 엔니의 팬클럽을 취재한 만큼 굳이 로레인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카카오톡으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 돌아와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로레인에게 다시 메시지가 온 것은 8월이었다. 그는 10월에 잠실에서 열리는 '러브유어셀프' 파이널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온다며 꼭 만나자고 했다. 이쯤 되면 의례적인 안부가 아니다. 만나야만 했다. 로레인의 카카오톡에는 프로필 사진이 없었다.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외국인과 잠실에서 '벙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콘서트는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우리는 26일, 잠실 주경기장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찌된 일인지 로레인은 1시간을 늦었다. 하필 그날따라 서울에 때 이른 추위가 시작됐다. 현장 스케치 취재도 해야 했고 기사 마감도 해야 했다. 트렌치코트 사이로 바람이 파고들었고 플랫슈즈의 얇은 밑창으로 한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까만 옷을 입은 키 큰 여자가 반갑게 나를 안았다.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영국 아미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 (조은별 기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로레인은 이미 런던, 암스테르담, 미국 등에서 열렸던 BTS 공연을 10회 이상 본 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해 공연장 바깥에서 음악을 즐기는 '걸돌족'으로 있겠다고 했다. 내심 로레인의 얇은 옷이 마음에 걸렸다.

로레인은 BTS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부분을 좋아했다. 서울 공연이 끝나면 부산 여행도 갈 계획이라고 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영국에서 못 만나 아쉬웠다며 나를 꼭 만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진심은 통하는 법. 어린 외국인 친구의 열정에 내 마음도 슬며시 열렸다.

헤어질 때 로레인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만약 내가 영국에 다시 가게 되면 너한테 연락할게." 불혹을 넘겨 20살 어린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 아미 친구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4개월간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러브유어셀프' 투어 취재가 내게 남긴 선물이다.